

# KIA 반격의 6월 '천적 고리'를 끊어라

### 울시즌 넥센·NC·두산에 3승13패 절대 열세

### 5강행 선결 과제... '1승4패' 넥센과 홈 3연전



KIA 타이거즈가 3일부터 넥센 히어로즈와 안방에서 주말 3연전을 치른다. 걱정부터 앞서는 시리즈이자 끊고 싶은 전적 고리다.

아직 시즌이 한창이지만 지난해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KIA에게 넥센은 무시무시한 영웅들이다. 지난 시즌에도 KIA는 16번의 대결에서 4승을 거두는데 그쳤다. 올 시즌에도 두 번의 만남에서 1승 4패를 남겼다. 광주에서의 첫 대결에서는 1승1패로 맞섰지만 넥센 안방으로 가 시즌 첫 싸움이 3연패를 당하고 돌아왔다.

결과도 결과지만 내용이 좋지 못했다. 호된 고척돔 첫날들이었다. 한기주가 한 경기 만루 홈런 두 방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겼고, 양현종은 윤석민에 이어 다시 한번 넥센전 완투패의 제물이 됐다. 헛타도 홈런회의 불론세이브에 입맛을 다셔야 했다.

올 시즌 넥센은 유격수 강정호에 이어 넥센의 4번 타자 박병호가 미국으로 떠났고, 조상우·한현희의 부상과 손승락의 이적으로 마운드 공백이 겹친 상태다. 전력이 약화된 넥센의 빈 틈을 파고들지 못하고 있는 만큼 더 치명적인 열세다.

싸움이 3연패를 설욕하고 싶지만 주말 3연전을 앞둔 KIA의 상황이 좋지 않다. 그나마 가장 믿음직한 선발인 헛타와 지크를 주중 LG와의 원정경기에서 소모했다. 양현종이 시리즈 마지막 경기를 위해 대기하고 있지만 세 경기 연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올 시즌 제 몫을 못 해주고 있다.

홈 연패에 대한 부담감도 있다. KIA는 앞선 NC와의 홈경기에서도 내리 패배를 당하면서 홈 3연패 중이다.

5강 목표를 위해 슬슬 순위 싸움에 시동을 걸어야 하는 KIA다. '천적 고리'를 끊는 게 우선 과제다. 가장 먼저 만나는 '대표 천적' 넥센을 상대로 앞선 4·5월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올 시즌 넥센과 함께 NC도 여전한 KIA의 천적이다. 개막전부터 NC와 힘겨루기를 했던 KIA는 지난 주말 홈경기에서 수비·회력 싸움에서 밀리면서 1승4패의 열세를 기록하고 있다. 두산전 전적은

더 좋지 못하다. 지난 시즌 매 경기 혈투를 벌이며 8승8패를 나눠가졌지만 올 시즌에는 1위 독주를 하고 있는 두산이 벌써 6경기에서 5경기를 차지했다. 두산과는 묘한 천적관계가 구성된다. 올 시즌 두산이 유일하게 열세를 보이고 있는 팀은 바로 롯데다. 롯데는 4승2패의 상대 전적으로 9개 구단 중 홀로 두산을 견제하고 있지만 KIA 앞에서는 기를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다. KIA는 올 시즌 롯데에 5승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타자들은 롯데전에서 0.350의 무시무시한 팀타율을 찍으며 11개의 홈런포를 날렸다. 롯데와의 6경기에서 홈에 들어온 주자는 모두 55명으로 경기당 평균 9.2득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KIA는 올 시즌 넥센·두산·NC전에서 3승13패의 전적을 보이고 있다. 승률은 0.188까지 떨어진다. 5강 목표를 위해서는 이들과의 초반 열세를 만회해야 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KIA 헛타·필·김광수 등 올스타전 팬투표 후보 올라



### 7일부터 포털 등서 투표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일 2016 타이거뱅크 KBO 올스타전에 출전할 '베스트12' 후보를 발표했다. 2016 올스타전은 오는 7월16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며 10개 구단이 드림 올스타(두산, 삼성, SK, 롯데, kt)와 나눔 올스타(KIA, NC, 넥센, 한화, LG)로 나눠 경기를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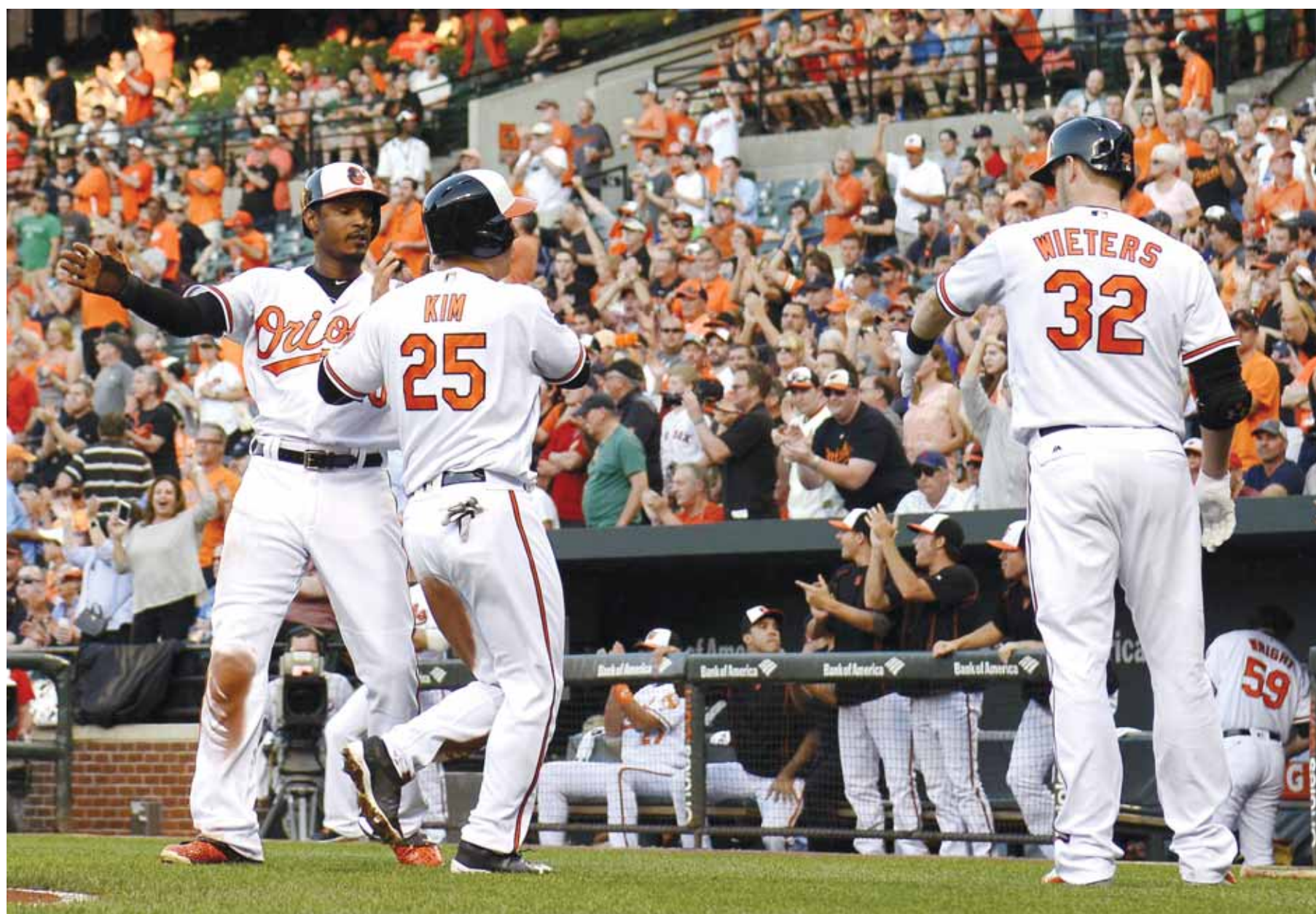
팬투표는 7일 오후 2시부터 7월1일 오후 6시까지 25일간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과 네이버(www.naver.com),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KBO앱과 KBO S-TATS앱을 통해 진행된다. 10개 구단 감독과 코치,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수단 투표는 6월 중 5개 구장에서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각 구단으로부터 추천받은 총 120명의 후보 중 드림·나눔 각 팀당 12명씩, 총 24명의 베스트 선수가 팬 투표와 선수단 투표를 통해 선정된다.

KIA에서는 헛타(선발투수)를 비롯한 홍건희(중간투수), 김광수(마무리투수), 백용환(포수), 필(1루수), 서동욱(2루수), 이범호(3루수), 강한울(유격수), 김주찬·김호영·오준혁(이상 외야수), 나지완(지명타자)이 올랐다. /김여울기자 wool@

## 내가 ML에 온 이유...김현수 출루율 1위

<50타석 이상 선수 중 0.469>



미국프로야구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김현수(가운데)가 1일 매릴랜드주 볼티모어 캠프 야드에서 열린 보스턴 레드삭스와 경기 중 홈으로 들어오며 동료 애덤 존스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2번 타자 선발 출전 3안타 4출루 2득점... 팀 승리 선봉

미국 프로야구(MLB) 볼티모어 오리올스가 외야수 김현수(28)를 영입한 건 그의 출루 능력을 높게 샀기 때문이다.

볼티모어는 작년 팀 홈런 아메리칸리그 3위(217개)를 하고도, 득점 7위(713점)에 그쳤다. 구단 내부에서는 낮은 출루율이 문제라고 판단했고, 김현수에게 2년 700만 달러(약 80억7300만원)를 안겨주며 영입했다.

김현수에게 주목한 건 KBO 통산 출루율 0.406이다. 문제는 김현수가 출루 능력을 보여줄 기회 자체를 얻지 못했다는 점이다. 시즌 초 완전히 외면받았던 김현수

는 간헐적인 기회를 살려 5월 말부터는 주전 좌익수로 출전을 늘려갔다.

2일(이하 한국시간) 보스턴 레드삭스전은 김현수의 출루 능력을 엿볼 좋은 기회였다. 2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한 김현수는 5타수 3안타 1볼넷 2득점으로 맹활약했다.

메이저리그 진출 후 세 번째 3안타 경기이자 두 번째 4출루 경기, 그리고 첫 번째 2득점을 올리면서 테이블세터 역할을 제대로 했다.

1회말 첫 타석은 조 켈리의 빠른 직구를

잡아당겨 우익수 앞 안타를 만들었고, 2회말에는 보스턴이 내야수들을 1루 방향으로 옮기는 '수비 시프트'를 걸자 워닝 트랙까지 타구를 보내 2루타를 만들었다.

이제까지 철저하게 오른손 투수만 상대했던 김현수는 3회말 왼손 투수 토미 레인으로 부터 볼넷을 끌었고, 7회말에는 클레이 벅츠의 커브를 때려 다시 시프트를 무너뜨리며 안타를 만들었다.

주목할 부분은 김현수의 출루율이다. 이날 경기로 김현수는 타율 0.382, 출루율 0.469, OPS 0.978을 기록하게 됐다.

김현수의 출루율 0.469는 메이저리그에서 50타석 이상 소화한 선수 중 1위다. 김현수는 모두 55번의 타석에서 안타 21개(2

루타 4개, 홈런 1개), 볼넷 8개를 얻었다.

규정타석을 채운 타자 중에서는 벤 조블리스트(시카고 컵스)가 출루율 0.439로 1위다. 물론 출전이 늘어가면 출루율은 내려갈 가능성이 크지만, 김현수는 안타뿐만 아니라 볼넷까지 얻을 수 있는 타자라는 점에서 성적 유지에 유리하다.

이제는 김현수도 상대 팀에게 경계 대상으로 떠올랐고, 집중 견제를 받다 보면 타격감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때 볼넷을 골라 출루할 수만 있다면 빠른 슬럼프 탈출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타격 기계'라는 별명을 얻었던 김현수는, 이제 미국에서 '출루 기계'로 변신할 준비를 마쳤다. /연합뉴스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전 세계인과 평창의 소통 매개체 역할을 할 공식 마스코트로 백호와 반달곰을 각각 선정해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에 보고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전 피겨스케이팅선수 김연아가 평창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과 동계패럴림픽 마스코트 반다비를 들고 있는 모습. <대회조직위원회 제공>

## 야구 2020 도쿄올림픽 재진입 유력

### IOC, 5개 종목 8월 투표

야구의 올림픽종목 재진입이 더욱 유력해졌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2020년 도쿄올림픽 추가 종목으로 대회 조직위원회가 제안한 야구·소프트볼, 가라데, 스케이팅보딩, 스포츠 클라이밍, 서핑 등 5개 종목을 심의해 승인했다.

IOC는 오는 8월 리우 올림픽 개막에 앞서 열릴 129차 총회에서 이들 5개 종목을 일괄 투표에 부쳐 도쿄올림픽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지난해 9월 IOC에 5개 종목을

정식종목 후보로 추천했다. 이는 2004년 12월 IOC 총회를 통과한 '아젠다 2020'을 바탕으로 올림픽 개최도시인 하노이 또는 그 이상의 종목을 올림픽 정식종목에 포함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도쿄조직위는 총 26개 종목에서 정식종목 제안서를 받아 8개 종목을 1차 후보로 추천했고, 최종적으로 5개 종목을 선정했다.

IOC 집행위에서 승인한 사항이 총회에서 거부되는 일은 드물어 이들 종목에 이번이 없는 한 도쿄올림픽 무대에 올릴 가능성이 크다. 총회라는 마지막 관문을 넘으면 야구·소프트볼은 2008년 베이징 대회 이후 12년 만에 올림픽종목으로 치러진다. /연합뉴스

## LPGA 혼전

### 리디아고·박인비 주춤 올해의 선수 등 안갯속 신인왕은 전인지 독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타이틀 경쟁이 혼전 양상으로 빠져들었다. 상금왕, 다승왕, 올해의 선수 등 어지간한 타이틀은 누가 주인이 될지 점칠 수 없는 구도가 됐다.

이번 시즌 무경을 열기 전에는 리디아고(뉴질랜드), 박인비(28·KB금융)의 2파전을 점쳤다. 시즌 초반은 리디아고의 독주 분위기였다. 리디아고는 3월 한 달 두 차례 우승과 한차례 준우승 등 압도적인 성적을 올리며 상금왕과 올해의 선수상 2연패를 일찌감치 예약하는 듯했다. 하지만 4월부터 판도가 요동쳤다.

지금도 리디아고는 상금랭킹과 올해의 선수상 포인트에서 선두를 지키고 있지만 독보적인 1위 자리가 아니다. 가장 큰 변수는 에리아 쥘타누간(태국)의 갑작스러운 도약이다. 리디아고가 주춤한 사이 쥘타누간은 상금순위에서 리디아고에 22만 달러 차이로 따라붙었다. 올해의 선수상 포인트 레이스에서도 격차가 불과 12점 차로 줄었다.

박인비의 부진과 스테이시 루이스(미국)의 몰락도 타이틀 경쟁 구도를 혼전으로 몰고 있다. 올해 박인비는 부상에 발목이 잡혀 개인 타이틀 경쟁은 사실상

포기 상태다. 최근 2개 대회는 손가락이 아파서 1라운드만 치고 기권했다. 타이틀 사냥꾼으로 군림했던 루이스도 개인 타이틀 경쟁에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처지다.

서너명 이상 선수가 앞서거나 뒤처지거나 각축을 벌이는 일대 혼전 가능성도 커 보인다. 올해 2승 이상을 수확한 '별 뒤 나라'가 4명이다. 쥘타누간이 3승이고 리디아고, 노무라, 장하나가 2승씩이다. 이들은 모두 개인 타이틀 경쟁에 뛰어난 셈이다. 한차례 우승이지만 늘 상위권 성적을 내는 렉시 토프슨(미국)과 이민지(호주), 폭발력이 남다른 김세영(22·미래에셋)도 개인 타이틀에 도전할 발판 마련했다. 우승은 없지만, 평균타수 3위 전인지와 평균타수 4위 헨더슨 등도 우승 물꼬만 틔다면 개인 타이틀에 뛰어들 기량을 갖췄다.

한편 신인왕 부문은 전인지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 전인지는 평균타수 3위의 안정된 샷을 앞세워 8개 대회에서 준우승 3차례를 포함해 5차례 톱10에 입상하며 2위 가비 로페스(멕시코)를 더블스코어 차이로 따돌리고 1위를 질주 중이다. /연합뉴스